

# 제1편 정 치

신 영 길 (전 장서가협회장)



## 제 1 장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여수



### 제1절 8·15와 여수건국준비위원회

19세기 중엽 이후 세계질서는 주권국가마저도 독립된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동남아와 동북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패권 하에 중국 황제에게 책봉과 조공을 바치고 봉작을 받은 제후에 불과했다. 영국이 인도를, 스페인이 필리핀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네델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미국이 하와이를 점령하듯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지배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1840년의 아편전쟁과 1854년의 일본 개항으로 동북아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폭풍이 휩쓸고 있을 때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미·불 개항요구에 대하여 위정척사로 통상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통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치밀하고 계획

적인 침략의도에 의하여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의 박탈로 자주적인 국권을 상실하였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일본인은 1910년에는 17만 여명이었으나 1943년 통계에 의하면 758,595명으로 집계되었다. 1941년 여수읍지 통계에 의하면 여수에는 한국인 37,813명에 일본인 3,63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944년 일·소 중립화에 합의한 일본은 만주 주둔 관동군(關東軍) 150만 명 중 일부를 남방전선으로 전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여수항구로 속속 이동하던 중 1945년 얄타협정에 의해 소련이 8월 8일 참전하게 됨으로써 전세가 혼미하였다.

당시 여수는 일본군의 병참기지였다. 군수물자의 보관 관리 등으로 신항 부두에는 대형창고가 즐비하게 들어섰고, 군수물자의 수송에는 일본군이 동원되었고, 우마차와 일용근로자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군납상품으로는 여수 어항에 생산되는 해산물의 80%가 군납용이었고, 김(海苔)은 여수에서 수집하여 납품했다. 남방 주둔군의 피복(반소매, 반바지), 지카다비(地下足袋: 엄지발가락이 벌어진 신발), 장갑, 양말(엄지발가락이 벌어진 것)은 여수에서 가공 공급하였다.

여수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대륙의 육교, 태평양의 장교적(長橋的) 조건으로 철길은 북으로 뻗쳐 중국대륙에 이르고, 한반도 남부의 기름진 땅으로서 동쪽으로는 부산, 서쪽으로는 목포, 남쪽으로는 제주에 이르고, 태평양쪽으로는 일본까지 정기여객선이 내왕함으로써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충지였다.



▲ 대한민국 지도 거꾸로 돌림(여수의 지정학적 위치)

여수는 이름 그대로 하늘이 높고 물결이 맑으며 인심 또한 훈훈하여 서로 돕고 섬기는 인심 좋은 항구도시였다. 여수는 태평양전쟁 때 일제의 가혹한 통제경제 아래에서도 주변 317개 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집산지여서 먹거리가 풍성하였다. 당국의 통제는 느슨한 편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압제에서 광복된 조국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도

지적 유산도 물적 자산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수 건국준비위원회(이하 여수건준)는 1945년 8월 18일 전남 관(鎭南館)에서 조직을 편성하여 활동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수 건국준비위원회 회원

- 위 원 장 정재완(鄭在浣)/ 부위원장 이우헌(李于憲)
- 총무부장 안종호(安鍾鎬)/ 치안부장 김수평(金守淸)
- 재정부장 김정평(金正淸)/ 노동부장 이창수(李昌洙)
- 양정부장 김문평(金汶淸)/ 문화부장 연창희(延昌熙)
- 조직부장 여도현(呂道鉉)/ 선전부장 이용기(李容起)
- 어민부장 정태식(丁台植)/ 관리부장 김성택(金性澤)
- 고문 김영준(金英俊)/ 고문 김우성(金宇聲)
- 귀환동포구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관평(金寬淸)

- 안건 : 여수시민궐기대회에서 이순신장군대첩비의 원상회복 청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통제이공수군대첩비(統制李公水軍大捷碑)를 찾으러 당시 여수건준 치안부장 김수평을 서울로 파견

이렇게 광복 3일 만에 여수건준의 조직을 완료하고, 정오 여수시민궐기대회에서 이순신장군대첩비의 원상회복 청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이 대첩비를 찾으러 치안부장 김수평이 서울로 파견되었다.

## 제2절 미 · 소 냉전과 38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광복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광복이 한민족의 자주적인 힘과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과정이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두 강대국, 즉 미국과 소



련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미·소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기로 한 합의에 따라 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과정을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남북분단을 가져온 38도선의 획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미국을 대표하여 3성조정위원회(국무, 육군, 해군)에 파견된 조지 링컨(George Lincoln) 준장을 중심으로 본스틸(Charles Bonesteel) 대령과 딘 러스크(Dean Rusk) 대령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정도이다.

광복 직후 한반도의 최대 과제는 통일된 자주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세의 힘으로 주어진 광복은 우리가 원하는 최대 급선무에는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 소련간에 펼쳐졌던 냉전기류는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한반도는 미·소 냉전의 접점에 위치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소 간의 냉전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 첨예하고 신속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기 한반도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체제가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이와같은 이념적 대립으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 제3절 조선총독부의 괴뢰정부 수립 책략

1945년 8월 8일 소련의 참전과 8월 9일의 일왕 친전 어전회의에서 휴전제 의가 논의되자 조선총독부 수뇌부는 전쟁의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감지하고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76만여 명의 안정적인 귀환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조선총독부 수뇌부는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최초로 송진우(宋鎭禹)와 접촉했으나 송진우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미 송진우는 1945년 5월 7일 독일 항복 직후 일본 외무성 사무관으로 있던 장철수(張徹壽)가 내의 속에 감추어 가지고 온 웰텔일기를 읽고 전세를 짐작하고 있었다.

웰텔일기는 미·소가 공동전선을 펴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특사로 소련을 예방한 웰텔의 소련실태조사 보고서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에 관한 연



▲ 1935년 당시 자신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최송설당 여사(앞쪽)가 축하하러 온 고하 송진우(뒷줄 왼쪽), 몽양 여운형 선생과 자리를 함께했다. [출처] 동아일보

구 자료로 '극비'에 붙여진 희귀서였다. 또한 장철수는 '알타협정'과 '대서양현장' 등 유럽 각국의 동향을 다룬 비밀 문서도 전했다.

송진우는 칭병을 핑계로 두문불출 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는 하라다(原田) 경무국장을 특사로 보내 종전의 압박을 알리고 조선의 내정을 맡아줄 것을 간청했다. 송진우는 하라다 국장에게 칭병을 핑계로 시간을 끌 작정이었다. 하라다 특사는 면담내용을 일체 엄비에 붙일 것을 확약 받고 물러갔다.

8월 14일까지 4일간에 무려 5차례에 걸쳐 조선총독부의 고관 및 군 장성이 송진우의 집 문전을 드나들었으나 송진우는 초지일관 했다. 시간이 촉박한 조선총독부는 8월 15일 엔도(遠藤) 정무총감이 여운형(呂運亨)과 안재홍(安在鴻)을 새벽 6시 반에 정무총감 관저로 불러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선총독부는 단순한 치안유지권 만을 이양하기 위한 협상으로 출발했으나, 여운형은 이를 기회로 앞으로 건국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지하고 실제적인 '정권

이양'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여운형은 다섯 가지의 이양조건을 전지해 수락을 받았다.

또한 여운형은 치안유지를 위한 무기와 2천만 엔의 자금제공 등의 협정을 체결했다. 8월 16일에는 엔도 총감이 여운형을 다시 불러 "미군이 조선 남단의 부산 목포지역을 점령할 것이며 반도의 나머지는 소련군이 점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5일 일왕은 항복조서를 방송했고, 전권이양이란 행정권을 인수한 여운형은 오후에 송진우를 찾아가 협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를 봉대하려는 송진우의 태도 때문에 실패한다. 마침내 여운형, 안재홍, 정백 등의 세력이 주축이 되어 전술한 건준 조직에 착수했다.

1945년 8월 16일 안재홍이 건준 부위원장 자격으로 경성방송국 연설에서 건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인수받았다고 하면서 경위대(警衛隊)의 설치와 정규군대의 편성, 식량확보와 통화, 물가의 안정, 정치범 석방 및 친일파 처리문제에 대한 건준의 방침 등을 밝혔다. 안재홍 부위원장의 연설에 자극받은 조선총독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건준을 감시했다.

8월 20일, 6일이라는 단시일에 360여개의 전국조직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총독부의 방대한 자금지원이 주효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조선총독부는 패배를 눈앞에 두고, 많은 자금의 수요와 조선총독부 관리와 군인들의 봉급, 위로금 및 건준의 치안유지 등을 빙자하여 조선은행권을 남발했다.

금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 현재 조선은행권 발권잔액은 49억 7,500만 엔이었는데, 동 9월 22일에는 86억 3,100만 엔으로 38일간 36억 5,600만 엔으로 1일 평균 9천 621만 엔씩이 남발되었다.

## 제4절 광복 이후 혼란기

우리 민족은 일제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 통일된 민족 구심조직을 갖고 있지 못했다. 국내와 해외에서의 무장독립투쟁 노선과 타협적 독립운동에 있어서 모든 독립운동조직 내지 민족운동조직은 일제의 탄압과 분열책동으로 사상과 투쟁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각각 분열되어 있었다.

광복은 우리 민족이 간절하게 염원해 왔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쁨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광복된 그날부터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잃었던 주권을 찾게 되었지만 당장은 통치의 공백을 가져왔다. 우리 민족은 통일된 독립운동 조직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복에 대한 준비도 없었다. 통치권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무정부적인 혼란을 초래하였다.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는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일제의 압제를 피해 해외로 나갔던 동포, 일제의 강제에 의해 징용과 징병 등으로 일본과 만주 등지로 끌려갔던 동포, 일제의 파멸로 일본과 사할린 및 대만과 중국 등지에서 귀환하는 동포, 북한에서 부일 협력자로 낙인 찍힌 추방예상자와 공산화 될 것을 우려한 민족주의자, 기독교신자 등이 남한으로 내려온 동포가 무려 350만 명에서 380만 명으로 폭증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갑자기 팽창되어 남한에서는 빈곤과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 제 2 장

# 지방자치

### 제1절 중앙정치의 변화

#### 1. 제헌국회의원 선거(5·10총선거)

UN의 노력과 주선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 총선거는 인구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남한에서 3분의 2인 200명, 북한에서 3분의 1인 100명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공산당과 좌익계열 및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립계 인사들이 불참했음에도 총유권자의 90%인 7,848,710명(만 21세 이상)이 자진 등록했다. 유권자 중 95.5%인 7,495,518명이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4·3사건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제주선거구 2명의 국회의원 선거는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선거는 200개의 의석을 놓고 전국에서 948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4.7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구는 소선거구로서 구(區), 시(市), 군(郡)을 단위로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면 10만 명 단위로 1구씩 늘리기로 하여, 전국 선거구는 200구가 되었다. 무투표 당선구가 12개구에 이르렀다.

총선 입후보 정당별 상황을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295명을 필두로 한민당에서 91명, 48개의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 사회단체가 43개였다. 1인의 후보자를 낸 곳도 26개나 되었다.

선거결과는 무소속 당선자가 85명(42.5%),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가 55명(27.5%), 한민당이 29명(14.5%), 나머지 29명은 무소속이었으나 그 가운데는 한민당과 독촉계로서 숨어있는 한민당이 16석, 독촉계가 6석으로 이승만의 집권에는 지장이 없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되었다. 제1회 본회의는 6월 1일 헌법기초위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10명씩 선출하고 그 가운데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명을 선출하였다.

이들 헌법기초위원 30명은 서상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사계의 권위자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초치, 연석회의를 거쳐 유진오(兪鎭午) 헌법안을 기초로 하기로 하였다. 유진오가 준비한 헌법초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 2)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며,
- 3) 법률의 위헌결정을 대법원에 일임한다는 등이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25명의 의원들 대부분은 한민당과 한민당에 가까운 인맥인 탓에 제헌의회에서의 한민당의 실세는 80여석으로 막강했다. 총선의원의 학력을 살펴보면, 일본 유학생이 46.8%로 주축을 이루었고, 미국 유학생이 27.1%, 국내파가 26%에 이르나 이들은 국졸에다 한학 수학자들이었다. 사회계층면에서 보면 중농 이상의 농업종사자가 13%, 지주 교사 변호사 의사 언론인 작가 등 인텔리가 75%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출신이 51.2%, 호남출신이 18.4%였다.

## 2. 2대 국회의원 선거(5·30총선)

1945년에서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의 3년 동안 한국에는 수많은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들이 등장하여 상호 간에 이해관계와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다. 정치주도권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크게 보아 좌파와 우파, 그리고 중간파로 나뉘어졌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은 종국적으로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독 정부수립으로 귀착되었다.

한민당은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선진국에서 교육받은 지식인들의 가계가 친일이라는 눈총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승만은 망명의 정치경륜과 정치지도력에서 박헌영과 여운형 세력의 조직과 대중 동원력에 대적할 수 있는 정치수완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민당은 권력 배분에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조각 과정에서 김도연, 민희식, 전진한, 이 인, 장택상, 윤치영, 허정 등 7인이 입각했으나, 이들은 한민당의 정통파는 아니었다. 이승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한민당은 1949년 2월 10일 한민당을 해체하고 임정계의 신익희, 광복군계의 이청천을 영입하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여 이승만에게 반기를 들고 야당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1950년 1월 27일 제헌국회 임기를 앞두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서상일 의원이 제안한 이 개헌안은 사실상 이승만 정부를 불신입하는 것이었다. 1950년 3월 14일 179명의 의원 중 가 79표, 부 33표, 기권 66표, 무효 1표로 첫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21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되었다.

이 선거의 특징으로는 국민당의 윤치영, 이 인 등이 낙선되었고, 민국당의 서상일, 조병옥, 백남훈, 김동원, 김준연, 백관수, 이영준 등 중진들도 대거 탈락했다. 반면 조소앙, 안재홍, 원세훈, 윤기섭, 오하영, 장건상, 여운홍 등 중도파와 좌파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5·30총선의 국민여론은 우파에서 중도좌파로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2대국회가 6월 19일에 개원하였으나, 개원 7일 만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 제2절 지방자치와 여수

### 1. 지방 자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은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적 의미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지방의 정치 행정이 제각기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처리되게 하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은 시민의 자치행정, 즉 직업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행정에 참여함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 2. 광복 이전

한국에서는 지방 차원의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 향직단체, 조선시대의 유향소·향청(鄕廳)·향약(鄕約)·제·방·사·동리제·5가통제·두레·품앗이,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각종 협의회와 조합 또는 지방회제도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3. 광복 이후

1945년 광복된 이후 근대적 의미의 한국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의 제헌 헌법의 공포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리고 1949년 7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종전의 관계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동법의 특징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조화하기 위한 제도로 의결기관인 지

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을 대립시키고 의회의 정치적 자유보장과 자치단체장의 선임, 그리고 선거의 민주화와 소청제도 등을 두어 과거와는 판이한 제도이다.

이후 지방자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시행을 연기했다가, 195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집권자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개정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주목되는 제도는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했다.
- 2) 지방의회가 법정 회의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감독기관의 폐회 명령권을 인정했다.
- 3) 의회 폐회 중의 위원회 개최 제도를 폐지했다.
- 4)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 5) 동·시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했다.
- 6) 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을 부활했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내각 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의 민선 지방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의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한국의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정부의 직할 하에 중간 자치단체로 도와 특별시·광역시와 있고, 그 밑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있다.



#### 4. 지방자치 시행과 여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정부의 행정권 이양 협정으로 국가통수권은 물론 중앙행정권도 넘겨받았다. 지방자치법은 10개월 후인 1949년 7월 4일 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케 되었다.

이에 따른 여수시의 명칭 변경은 1949년 8월 14일 '부의 설치 및 군의 명칭, 관할구역 변경'에 의하여 여수군에서 분리, 여수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여수군은 여수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을 여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수부읍에는 당시 여수읍장이던 김정식(金定植), 여천군수에는 여수군수였던 김철주(金哲柱)가 그대로 유임되었다.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부로 승격된 지 하루 만에 자동적으로 여수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술했듯이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법의 설정과 시행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1952년 4월 25일을 기하여 지방자치는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하였으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지방자치가 중단되다가,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여수 지역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남도의회는 여수시 3명, 여천시 2명, 여천군 3명이 선출되었으며, 여수시의회 의원 27명, 여천시의회 의원 7명, 여천군의회 의원 7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으로 여수·여천시 각 3명, 여천군 2명이 선출되었으며, 여수시의회 의원 28명, 여천시의회 의원 9명, 여천군의회 의원 7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1998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새로운 여수시로 통합되면서 여수시의회 의원 수는 모두 44명으로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으로 6명이 선출되었고, 26명의 여수시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 3명, 여수시의회 의원 27명이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전 소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로의 전환과 비례 대표제의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도

의원 4명,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 23명과 비례 대표 의원 3명을 합친 총 26명이 선출되었다.

여수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양대 기관은 여수시의회와 함께 여수시청이다. 통합 여수시 이후의 시장으로는 제1대(1998. 4. 1~1998. 6. 30)는 김광현, 제2대(1998. 7. 1~2002. 6. 30)는 주승용, 제3대(2002. 7. 1~2006. 6. 30)는 김충석, 제4대(2006. 7. 1~2010. 6. 30)는 오현섭이 역임했으며, 제5대(2010. 7. 1~현재)는 김충석 시장이 재 당선되어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여수시 이후의 여수시의회 역대 의장으로는 제1대 위장환, 제2대 전반기 추상은·후반기 정이철, 제3대 전반기 이성수·후반기 추상은, 제4대 전반기는 김정민(성해석), 후반기는 박정채, 제5대 전반기는 김영규 의원이 맡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현재 의장단,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관광건설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문, 의정, 의사, 자료 부문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삼려통합(三麗統合)의 지방자치

여수의 지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세와 흡사하다. 여수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는 무수히 널려 있는 고인돌에서 그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삼한시대에 여수는 마한 땅이었으며, 삼국시대에는 백제 영역이었다.

여수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여수현(麗水縣)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고려 말 대륙 흥건적의 침략, 왜구의 노략질에 대항하기 위해 여수현 지역은 진포(鎭浦)가 설치되는 등 남해안 방위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조선 초 여수 현령 오흔인(吳欣仁)은 역성혁명으로 집권한 이성계(李成桂)의 조정에 항거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공납금 일체를 상납하지 않으면서 조선조 건국을 반대했다. 이로 인하여 1396년 여수현이 폐현이 되는 불운을 겪

게 되었다.

이후 여수지역은 행정구역상 순천부에 500년간 편입되었는데 이때 3차에 걸쳐서 순천부 관할에서 독립하여 여수현으로 복권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짧은 기간이었고, 1897년 8월 2일 지방관 서임규정에 의거하여 여수군이 설립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수산업 중심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1949년 8월 13일에 여수읍이 부(府)로 승격되면서 자동적으로 시(市)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이외 면(面)은 여천군(麗川郡)으로 독립되었다.

또 1976년 여천산단이 조성되자 전라남도 직할 여천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8년 여천출장소가 시로 승격하여 여천시로 되면서, 여타 면은 여천군으로 남게 되어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개 시군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갯마을을 생활터전으로 끼고 살아온 반도를 세 군데로 쪼개 갈라놓은 것은 지역 민심이나 주민의 습성, 나아가 지정학적 경계, 바다의 조수, 해산물의 유동성에 따른 분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하지만 흠어졌던 33만 여수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1998년 4월 1일(법률 제5452호) 삼려가 통합되어 통합 여수시를 출범시켰다.

## 제 3 장

# 정 당 활 동



### 제1절 정당사

#### 1. 한국민주당

광복 공간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의 민족주의 진영 인사들은 조선건국준비 위원회과 조선인민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서둘러 민족주의 정당을 조직하여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창당하기로 결론을 짓고 창당준비에 들어갔다.

우익 민족주의 진영이 총 결속하여 창당한 한국민주당은 창당 선언문과 강령 정책 그대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들어 우리정부로 맞이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에 대항하



는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보수 정당인 고려민주당·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국민대회준비회·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 환영국민대회 등이 참여하였다. 주도 인물은 송진우·김성수·장덕수·조병옥·김도연·윤보선·백남훈 등이었다.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절대지지 하던 종전의 태도를 바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운동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수립의 주요 추진 세력이 되었다. 이후 당세가 위축되자 1949년 1월 27일 한국국민당의 신익희, 대동청년단의 지청천 등과 규합하여 2월 민주국민당으로 새 출발하였다.

## 2.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원래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 구성체였다. 1938년 조선혁명당의 이청천, 조경한, 현익철, 한국독립당의 조소앙, 홍진, 한국국민당의 김구, 조완구 등이 합의하여 1940년 5월 10일 한국독립당으로 통폐합되었다.

1945년 환국 이후 국내 여러 정당과 정파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계가 중심이 되어 당의 강령과 당책을 보완 수정하여, 1946년 8월 28일 새로이 창당하였다.

## 3. 민주국민당

이승만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한민당은 이승만과 대결하기 위하여 1949년 2월 10일 한민당의 당명을 버리고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창당했다. 광복 공간 수많은 정치단체의 대부분이 공산당과 좌파세력이었던 속에서 반민족분자를 제외한 민주적인 각계 각파와 제휴하여 한민총의(韓民總意)에 입각해 민주국민당이 창당되었다.

그 구성원은 위원장 신익희(申翼熙), 부위원장은 김도연(金度演), 이영준(李榮俊)이었다.

## 4. 대한국민당

대한국민당은 민주국민당이 반이승만 운동으로 원내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삭제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 통과시키려 하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파들이 1949년 11월 12일 신정회(新正會), 노농(勞農), 일민구락부(一民俱樂部) 소속 의원들과 결성한 정당이다. 이승만 박사가 창도한 일민주의 구현을 당시로 하여 당명을 대한국민당으로 발표하였다.

## 5. 자유당

1950년 9·28 서울 수복과 더불어 10월 1일을 기하여 국군과 UN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하자 국회도 활기를 띠기 시작, 각 정파마다 자파세력의 결속과 확장이 활발하였다. 광복 후 평소 정당 불신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기하여 신당조직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승만과 민국당은 서로 견원지간의 앙숙으로 변했다.

1950년 7월 14일 내무부장관에 조병옥(趙炳玉), 11월 23일에는 법무부장관에 김준연(金俊淵)과 사회부장관에 허정(許政) 등 민주국민당계 인사들이 입각하여 정국은 자연 정돈상태에 들어갔다. 민주국민당의 중진이 들어감으로써 행정부와 국회 간에는 약간의 마찰과 반목이 예상되었으나, 10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에서 재차 철수하여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5·10선거에는 불참했던 좌익우파와 중간파들이 5·30선거에는 적극 참가하여 대거 진출로 2대 국회는 원내 세력분포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이합집산, 원내에는 여당적인 한청과 국민회 및 대한국민당 등의 합동체인 신정동지회와 야당인 민주국민당 간에 각축전이 전개된 끝에 신정동지회가 70명을 확보하여 거대세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옹호하는 아성이 되었다.

1951년 4월 24일 이승만대통령은 거창(居昌)사건의 책임을 지워 국방, 내무, 법무, 3장관의 퇴임을 종용하자 조병옥 내무와 김준연 법무는 즉각 사임했다.

야당은 이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대하여 이승만 타도공작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양자 간에 반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야당세력 축출의 단계로 광복 이후 한민당과 민주국민당의 정치형성 기반이었던 경찰관과 행정공무원을 대량 축출하자 정계활동 기반의 원동력을 상실한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5월 9일에는 이시영 부통령이 여당과 야당의 마찰이 절정에 이르러 원내외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는 자신의 인책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사표서 반환을 결의하였음에도 종내 불응하여 수리하고, 5월 15일에는 여당 대표로 이갑성(李甲成) 의원이 지명되고, 야당에서는 공화구락부와 합작하여 김성수(金性洙)를 지명하여 투표한 결과, 김성수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야당은 내무, 법무 등 실권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실의에 빠졌다가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필두로 부통령까지 획득하여 득승지력은 여당을 가압하고 차기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자당계 선점을 획책하는 원동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승만의 8·15 신당조직 성명이 나오자 민주국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 사회단체가 총망라하여 신당에 참여,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이란 만홀지심(漫忽之心)의 정당이 탄생하였다. 이것이 자유당으로 당수는 이승만(李承晩), 부당수는 이범석(李範奭)이었다.

이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창당되었다가, 결국 사사오입의 개헌 파동을 거쳐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의 발발로 물러나게 되자 자유당도 따라서 몰락하게 되었다.

## 6. 공화당

1956년의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1955년 가을 격동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자유당은 개헌파동 이후 10여 의원의 이탈로 원내 3분의 2가 무너져 절대 안정세력이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붕계 주류의 강대함을 의식한 나머지 재등장을 꿈꾸는 이범석, 배은희, 이갑성, 지청천 등 자유당 창당파와 무소속의 장택상이 합작하여 신당조직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신당 조직은 이기붕세력을 거세할 심산으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이범

석과 장택상은 여당의 위치에서 당을 조직하되 이승만 대통령의 의사타진 여하에 따라 만일 이대통령이 불응할 경우에는 야당으로 발족하기로 했다.

11월 17일 신당조직문제와 차기 부통령문제를 이대통령과 직접 상담하고 나온 이범석은 장택상과 협의하여 신당조직운동을 급속도로 진행시켰다. 이대통령의 담화로 보아 지지를 받지 못한 듯 이들은 야당으로서의 구상을 하였다.

1956년 1월 6일 당명을 민정당으로 가칭하고,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3인의 지도위원이 대의원을 95명씩 추천하여, 285명으로 하여 각 지역별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동당의 현역의원으로는 장택상(張澤相), 손권배(孫權培), 윤재욱(尹在旭), 김두한(金斗漢), 박재홍(朴在洪) 등 5명이었다.

가칭 민정당의 두 영수급인, 이승만 대통령 노선 절대지지파인 이범석과 내각책임제 주장파 장택상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1956년 3월 30일 가칭 민정당을 공화당으로 변경하여 당명을 새로 정했다. 그리고 대의원 1,745명 중 1,352명이 참석하여 창당대회를 가졌다.

## 7. 신민당

1967년 2월 7일 민중당과 신한당은 합당선언대회를 갖고 신민당(新民黨)으로 새롭게 발족했다. 민중당 대표최고위원 박순천(朴順天)과 신한당 총재 윤보선(尹潽善)은 “민중당과 신한당은 신설 통합의 방법으로 합당한다.”는 합당결의서에 서명하였다.

신민당 창당대회는 신태악(辛泰嶽), 서범석(徐範錫)의 사회로 진행되어 4자 회담과 9인위원회가 작성한 당헌, 선거대책본부 설치요강, 강령, 기본정책, 공약 7장,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채택하고, 전당대회 의장에 김의택(金義澤), 부의장에 정운갑(鄭雲甲)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당 고문에는 박순천, 이범석, 백낙준 3인을 선출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3선 개헌 저지의 일환으로 1969년 9월 7일 당을 해체한 구 신민당 간부들은 국회 전 신민당 원내총무실에서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유진오 전 신민당 총재, 부위원장에 유진산·정일형·이재형·조한백 등 전 신민당 부총재를 각각 선출하고, 김의택·유옥우·이상돈·태완선·김관술 등으로 5인소위원회를 구성, 일체의



창당 작업을 맡기기로 하고, 전 신민당 지구당위원장을 각각 해당 지구당 조직책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늦어도 9월 22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신민당을 창당키로 하였다. 주요 구성원은 총재 유진오, 수석부총재 유진산, 부총재 정일형·이재형·조한백, 고문 윤보선·박순천·이상철이었다.

그리고 1970년 1월 22일 재야인사 20명은 “단합된 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절감하여 통합야당인 신민당에 입당했다. 또한 범청년민주수호투쟁위원회의 최형우 등 9명이 입당했으며, 윤길중 등 혁신계 인사 16명이 동 23일에 입당하였다.

1970년 1월 24일 신민당사에서 자유당과 양당통합을 위한 수임기구의 합동회의를 열어 신민당이 자유당을 흡수 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1970년 1월 26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총대의원 606명이 참석, 새 당수인 대표위원에 유진산을 선출하고, 전당대회 의장에는 김홍일, 당 고문에는 윤보선·박순천·이상철·유진오 등 4명을 추대하였다. 고문은 뒤에 전 신민당 부총재였던 이재형과 정일형을 추가하여 6명이 되었다.

당시 신민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출마할 뜻을 밝힌바 있는 40대 기수에 대한 시선은 국내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69년 11월 8일 김영삼, 1970년 1월 24일에는 김대중, 같은 해 2월 12일에는 이철승이 출마 성명을 발표하였다.

신민당은 1970년 9월 29일 시민회관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통령 후보 지명투표에서 김영삼, 김대중의 대결로 1차 투표에서는 재석 885명 중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로 모두 과반수에 미달되어 2차 투표를 한 결과, 재석 884명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로 김대중이 지명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지명 수락연설을 통해, ① 평화적 정권교체의 획득, ② 모든 국민으로부터의 지지획득, ③ 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신민당은 반일, 반공, 반독재를 위한 민주 세력임을 자처하고 박정희의 공화당에 대항했으나, 1980년 10월 27일 발표된 신헌법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 8. 민주공화당

김종필(金鍾泌) 중앙정보부장의 예편을 계기로 5·16군사정변 세력이 중심이 될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어 갔다. 이들은 “5·16 혁명이념을 계승하여 궁극적으로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할 건전한 현대 정당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1963년 1월 10일 발기인 첫 모임을 갖고 12명의 발기인을 두고 창당했다.

초기 공화당의 주요 당직자는 총재 정구영(鄭求瑛),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진(金晟鎭), 당무위원 윤치영(尹致暎), 이원순(李元淳), 전예용(全禮鎔), 민병권(閔丙權), 백남억(白南億), 성인기(成仁基), 이 활(李活)이었다.

결국 1963년 2월 26일 서울시민회관에서 5·16 군사정변의 주도 세력들이 민주공화당 창당대회를 열고 총재에 정구영, 당의장에 김정렬을 선출하였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된 이후 17여 년간이나 집권당의 위치를 누려왔으나 1979년 10월 26일의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시해 사건에 이은 1980년의 신헌법 발효로 해체되었다.

## 제2절 여수의 정당 활동

### 1. 1948년~1970년대

1948년 5·10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정당 조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정당들은 집권자와 여당의 중압에 견디지 못했거나 당내의 갈등과 재정상의 이유로 2~3년, 내지 5~6년 사이에 소멸하고 집권당만이 장수를 누렸다.

전술한 것처럼 1951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주도하에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창당된 자유당이 4·19혁명으로 실각할 때까지 10년 동안 집권 정당으로 존재하였다.

여수 지구 자유당의 주요 활동 인물은 장 기, 김철주, 문 균, 황병규, 이은

태 등이었다.

1963년 박정희, 김종필 등 군사정변의 주도 세력이 주도한 민주공화당이 17여 년간 집권당이란 위치에서 장수를 누렸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1980년 10월의 신헌법 발효로 자연 와해되고 말았다.

한국민주당(한민당)은 1945년 9월 서울 천도교기념관에서 창당 대회를 가졌다. 한국민주당 여수지구당의 주요 활동 인물은 김영준, 김문평 등이었다.

사사오입 개헌 파동의 부산물로 탄생된 호헌동지회가 모체가 되어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롭게 탄생한 제2공화국의 집권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구양파로 갈등을 지속하다가 분열되었다.

1960년 10월 13일 구파가 분당을 선언하고 신당 조직을 추진하여 1961년 2월 20일 신민당을 발족하였다. 당시 여수지구 민주당 주요 활동 인물은 김문평, 정재완, 김우평 등이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야당 통합론의 대두와 더불어 윤보선을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로 합의한 민주당과 신한당이 1967년 2월 11일 합당하여 신민당으로 발족되었다. 당시 여수 지구 신민당의 주요 활동 인물은 정재완, 김우평, 박병효 등이었다.

민주공화당(공화당)은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된 이후 17여 년간이나 집권당의 위치를 누렸다. 여수 지구 공화당의 주요 활동 인물은 유경식, 이우현, 김상영, 김중태, 이도선 등이었다.

## 2. 1980년대~1990년대

1980년 10월 27일의 신헌법 발효로 모든 기존 정당들이 해산됨과 더불어 11월 23일의 계엄사 포고로 일부 정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정당 활동도 다시 시작되었다.

1981년 1월 이후로 새로운 정당들이 대거 창당되었다. 당시 여수 지구의 각 정당의 주요 활동 인물은 민주정의당의 김재호, 민주한국당의 심의석, 민주사회당의 최병재, 한국국민당의 주인철, 민권당의 김용일, 신정당의 김형주, 근로안민당의 신순범 등이었다.

### 3. 2000년 이후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수 지역 정당 활동은 주로 열린우리당이 강세를 보였다. 여수 지역의 경우 갑구는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을구는 열린우리당의 주승용이 각각 당선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정당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2005년 민주당로 개칭)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광역단체장(전라남도지사)으로 제3대 박태영과 제4대 박준영 후보가 당선되었고, 기초단체장인 여수시장 선거에서도 제3대 김충석과 제4대 오현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대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제1선거구 김종철, 제2선거구 송대수, 제3선거구 서일용, 제4선거구 최종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도의원으로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이 강세였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수시의회의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 23명, 비례대표 의원 3명 등 총 26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4명(지역 12, 비례 2), 열린우리당이 11명(지역 10, 비례 1), 무소속이 1명이었다.

2010년 제5대 선거에서는 여수시장에 무소속의 김충석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교육위원으로 윤문철 후보가, 도의원으로는 제1선거구에 이광일, 제2선거구에 성해석, 제3선거구에 송대수, 제4선거구에 최철훈, 제5선거구에 서현곤, 제6선거구에 정빈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4대 여수시의회의 첫 임시회

여수시의회의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 23명, 비례대표 의원 3명 등 총 26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9명(지역 17, 비례 2), 국민참여당이 2명, 민주노동당 2명(지역 1, 비례 1), 무소속이 3명이었다.



# 제 4 장

# 선 거



## 제1절 선거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이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당을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선거 등이 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지역교육의원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 제2절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직선제가 도입되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제 8·9·10·11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가 실시되었다.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수시는 총 27,937명의 유권자 중 86.8%인 24,239명이 투표, 여천군은 총 56,258명의 유권자 중 94.0%인 52,900명이 투표하였다.

여수시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11,179표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였으며, 그 외 무소속의 이시영이 9,922표, 무소속의 조봉암이 1,417표, 무소속의 신흥우가 640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여천군에서도 자유당의 이승만 35,995

표로 1위, 무소속의 이시영이 9,030표, 무소속의 조봉암이 4,238표, 무소속의 신흥우가 1,307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 1952년 8월 5일 발췌개헌안으로 개정된 헌법에 의해 정·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수시는 총 31,705명의 유권자 중 92.5%인 29,338명이 투표, 여천군은 총 54,811명의 유권자 중 95.7%인 52,470명이 투표하였다. 여수시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13,071표, 무소속의 조봉암이 9,207표를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여천군

에서도 자유당의 이승만이 26,626표, 무소속의 조봉암이 13,092표를 각각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수시는 37,500명의 유권자 중 97.6%인 36,593명이 투표, 여천군은 61,989명의 유권자 중 98.6%인 61,099명이 투표하였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혁명에 이은 4월 29일의 국회 결의에 의해 무효 처리되었다. 이후 내각책임제로의 개헌과 더불어 1960년 8월 12일 윤보선이 국회 간선으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제5대 대통령 선거는 5·16군사정변 이후의 개헌을 통하여 다시 직선제로 전환하여 1963년 10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42,172명의 유권자 중 82.9%인 34,945명이 투표, 여천군은 67,531명의 유권자 중 89.1%인 60,202명이 투표하였다.

이 선거에서 여수시의 경우 민정당의 윤보선이 18,469표,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13,263표를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추풍회의 오재영이 1,016표, 정민회의 변영태가 331표, 신흥당의 장이석이 230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여천군에서는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39,782표로 1위, 민정당 윤보선 12,427표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추풍회의 오재영이 2,211표, 신흥당의 장이석이 698표, 정민회의 변영태가 516표를 획득하였다.

제6대 대통령 선거는 1967년 5월 3일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45,902명의 유권자 중 83.2%인 38,190명이 투표, 여천군은 71,355명의 유권자 중 87.8%인 62,653명이 투표를 하였다.

여수시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17,802표, 신민당의 윤보선이 16,616표를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통한당의 오재영이 910표, 민중당의 김준연이 646표, 한국독립당의 전진한이 289표를 획득하였다. 여천군에서도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32,536표, 신민당의 윤보선 21,202표를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통한당의 오재영이 2,471표, 민중당의 김준연이 2,007표, 한국독립당의 전진한이 550표, 정의당 이세진 454표를 획득하였다.

제7대 대통령 선거는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53,074명의 유권자 중 79.2%가 투표, 여천군은 73,079명의 유권자 중 83.1%인

60,762명이 투표하였다. 여수시에서는 신민당의 김대중이 26,400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13,395표를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국민당의 박기출이 106표, 자민당의 이종운이 29표, 정의당의 진복기가 410표를 얻었다. 여천군에서는 신민당의 김대중 29,192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25,103표를 획득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정의당의 진복기가 1,045표, 국민당의 박기출이 229표, 자민당의 이종운이 74표를 얻었다

한편 제8·9·10·11대 대통령 선거는 유신헌법 하에서 간선제로 실시되었다. 제8대 대통령 선거는 1972년 12월 22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8년 7월 6일의 제9대 대통령 선거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1979년 10·26사태 후 시행된 1979년 12월 6일의 제10대 대통령 선거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고,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고 같은 달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된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은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제5공화국 헌법 하에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유권자단 간선으로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다시 1987년 12월 16일의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 만에 직접 선거로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총 99,150명의 유권자 중 89.4%인 88,645명이 투표, 여천시는 총 31,120명의 유권자 중 90.2%인 28,076명이 투표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은 총 54,734명의 유권자 중 89.0%인 48,695명이 투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세 지역 모두에서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하였다.

여수시에서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이 78,538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6,315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 1,375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399표, 한주의통일한국당의 신정일이 33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여천시에서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이 23,557표,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2,409표, 통일민주당 김영삼이 1,183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303표, 한주의통일한국당의 신정일이 21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에서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이 42,641표, 민주정의당의 노



태우가 3,689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 559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146표, 통일한국당의 신정일이 47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총 114,782명의 유권자 중 86.5%인 99,269명이 투표, 여천시는 44,734명의 유권자 중 88.1%인 39,422명이 투표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은 50,186명의 유권자 중 83.9%인 42,130명이 투표하였다. 이 선거에서도 세 지역 모두에서 민주당의 김대중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하였다.

여수시에서는 민주당의 김대중이 91,521표, 민자당의 김영삼이 3,591표, 국민당의 정주영이 1,824표, 신정당의 박찬종이 698표, 무소속의 백기완이 273표, 무소속의 김옥선이 237표, 정의당의 이병호가 51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여천시에서는 민주당의 김대중이 34,707표, 민자당의 김영삼이 2,412표, 국민당의 정주영이 1,112표, 신정당의 박찬종이 557표, 무소속의 김옥선이 108표, 무소속의 백기완 97표, 정의당의 이병호가 14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에서는 민주당의 김대중이 38,331표, 민자당의 김영삼이 1,906표, 국민당 정주영이 672표, 무소속 김옥선 340표, 신정당 박찬종이 181표, 무소속 백기완이 112표, 정의당 이병호가 38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1997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총 124,371명의 유권자 중 85.8%인 106,755명이 투표, 여천시는 총 50,285명의 유권자 중 88.7%인 44,625명이 투표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은 총 45,986명의 유권자 중 85.6%인 39,380명이 투표하였다. 이 선거에서도 국민회의의 김대중이 압도적인 표차로 세 지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여수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100,441표,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3,126표, 국민신당의 이인제 1,397표, 국민승리21의 권영길이 172표, 바른정치연의 김한식 149표, 한국당의 신정일 72표, 공화당의 허경영이 39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여천시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40,729표,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2,022표, 국민신당의 이인제가 1,019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110표, 바른정치연의 김한식이 75표, 한국당의 신정일이 43표, 공화당의 허경영이 19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36,865표, 한나라당의

이회창 952표, 국민신당의 이인제가 402표, 바른정치연의 김한식 176표, 한국당의 신정일이 92표, 공화당의 허경영 45표, 국민승리21의 권영길이 43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수시는 총 224,786명의 유권자 중 167,54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4.5%를 기록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내용은 민주당의 노무현이 155,802표,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7,060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 2,298표, 호국당의 김길수가 614표, 하나로연합의 이한동이 287표, 사회당의 김영규가 102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수시는 총 223,347명의 유권자 중 139,798명이 투표하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109,798표, 한나라당 이명박 13,489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3,047표, 민주당 이인제 2,197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5,139표를 획득하였다.

### 제3절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 지역 여수갑은 대한 독립촉성국민회의 김문평이, 여수을은 무소속 황병규가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 지역은 무소속의 정재완, 여천 지역은 대한국민당의 황병규가 당선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 지구는 무소속의 정재완, 여천 지구는 무소속의 김철주가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 지구는 민주당의 정재완, 여천 지구는 자유당의 이은태가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양원) 민의원 선거에서 여수 지구는 민주당의 정재완, 여천 지구는 민주당의 김우평이 당선되었다. 여수 지구의 정재완은 제2대부터 내리 4선을 하였다. 또한 제6·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수시와 여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의 이우현이 제6대에 이어 제7대 의원으로도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였던 선거구가 여수와 여천 2개의 선거구

로 다시 분리되어 여수시는 공화당의 김상영, 여천군은 공화당의 김종태가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여수, 여천, 광양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었으며 공화당의 김상영과 신민당의 박병효가 동반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이도선과 신민당의 박병효가 동반 당선되었다.

또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민당의 신순범과 민정당의 김재호가 당선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순범과 김재호가 동반 당선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면서 선거구가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으로 분리되어 여수시에서는 평민당의 김충조, 여천시·여천군에서는 평민당의 신순범이 각각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수시는 민주당의 김충조가, 여천시·여천군은 민주당의 신순범이 다시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시는 국민회의의 김충조가, 여천시·여천군은 국민회의의 김성곤이 각각 당선되었다.

1998년 4월 1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여수시로 개편됨과 더불어 선거구도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어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충조가 당선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시의 선거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지면서 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여수시 갑구는 열린우리당의 김성곤이, 여수시 을구는 열린우리당의 주승용이 각각 당선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갑구에는 민주당 김성곤, 을구에는 민주당 주승용이 각각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김충조, 서종표가 당선되어 총 4명의 여수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



김 문 평

• 1929~1987. 1. 27  
• 제10대 국회의원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황 병 규

• 1907~1984. 2. 17  
• 제11대 국회의원 : 무소속  
• 제2대 국회의원 : 대한국민당 (여천)



정 재 완

• 1900. 1. 2~7  
• 제2대 국회의원 : 무소속(여수)  
• 제3대 국회의원 : 무소속(여수)  
• 제4대 국회의원 : 민주당(여수)  
• 제5대 국회의원 : 민주당(여수)

## 제4절 지방선거

### 1. 광역 자치 단체장(도지사) 선거

광역 자치 단체장 선거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등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1대 광역 자치 단체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여수시는 총 유권자 119,324명 중 84,973명이 투표하였으며 민주당의 허경만이 67,869표를, 민자당의 전석홍이 13,043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여천시에는 총 유권자 46,884명 중 35,985명이 투표, 민주당의 허경만이 26,915표를, 민자당의 전석홍이 7,393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그리고 여천군은 총 유권자 48,054명 중 36,849명이 투표하였으며 민주당의 허경만 26,477표를, 민자당의 전석홍 6,656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결국 민주당의 허경만 후보가 전라남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제2대 광역 자치 단체장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여수시 갑 선거구는 총 유권자 97,187명 중 65,689명이 투표, 새정치국민회의 허경만이 59,188표를 획득하였다.

여수시 을 선거구는 총 유권자 124,279명 중 73,579명이 투표, 새정치국민회의 허경만이 68,431표를 획득하였다. 이 선거에서도 새정치국민회의 허경만 후보가 전라남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제3대 광역 자치 단체장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총 유권자 224,680명 중 128,464명이 투표하였다. 개표 결과 민주당의 박태영이 73,429표, 무소속의 송재구가 32,229표, 무소속의 송하성이 11,837표, 한나라당의 황수연이 5,123표, 무소속의 안수원이 2,700표였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 박태영이 전라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태영 도지사의 유고로 2004년 6월 5일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여수시는 총 유권자 222,624명 중 58,971명이 투표하여 26.0%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새천년민주당의 박준영이 31,688표, 열린우리당의 민화식이 21,608표, 민주노동당의 김선동이 4,842표였다. 이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박준영 후보가 전라남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제4대 광역 자치 단체장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었다. 여수시는 총 유권자 224,001명 중 122,844명이 투표하여 54.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도 새천년민주당의 박준영 후보가 전라남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29,984표(68.30%)를 얻어 전라남도지사 3선에 성공하였다.

최초로 실시된 전라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순천대학교 총장을 지낸 장만재 후보가 453,760표(54.95%)로 당선되었다.

## 2. 기초 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여수시장은 민주당의 김광현 후보가 50,660표를 득표하여 60.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여천시장은 민주당의 정체호 후보가 15,192표를 득표하여 43.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여천군수는 민주당의 정근진 후보가 18,558표를 득표하여 52.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정근진 군수 유고로 1996년 보궐선거에서 주승용이 여천군수로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주승용 후보가 76,852표를 득표하여 56.1%의 득표율로 여수시장에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충석 후보가 68,076표를 득표하여 53.9%의 득표율로 여수시장에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오현섭 후보가 58,681표를 득표하여 47.8%의 득표율로 여수시장에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의 김충석 후보가 57,641(46.70%) 득표를 해 여수시장에 당선되었다.

동시에 실시된 여수시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여수고등학교장을 지낸 윤문철 후보가 37,359(30.32%) 득표로 당선되었다.

## 3. 광역의원(도의원) 선거

광역 의원 선거는 모두 8차례 실시되었다. 1952년에 개원한 초대의원은 여

수시 김봉채(대한청년단), 여천군 서일선(자유당), 박재규(자유당)였으며, 1956년에 개원한 제2대 의원은 여수시 하동호(자유당), 여천군 김종석(자유당), 임종훈(자유당)이며, 1960년에 개원한 제3대 의원은 여수시 박종석(민주당), 김봉채(무소속), 여천군 최종만(민주당), 조두만(민주당)이었다.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제4대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수시는 류지형·이상운·이재찬, 여천시는 박병열·김성한, 여천군은 김종철·김현청·주승용이 각각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모두 평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5대 광역 의원선거에서 여수시는 민주당의 김인식·이상운·이재찬, 여천시는 민주당 박병열·남택수·김성한, 여천군은 민주당 김종철, 무소속 주승용이 각각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주승용이 사퇴한 보궐선거에서는 김길봉이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6대 광역 의원 선거에서 여수시 갑 선거구는 박병열·박동현·김종철·김선곤, 여수시 을 선거구에서는 이상운·김인식이 각각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김선곤의 면직으로 보궐선거에서 김형곤이 당선됐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광역 의원 선거에서는 김종철·송대수·박병열이 각각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모두 민주당 후보였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8대 광역 의원 선거에서 여수시 제1선거구는 민주당 김종철, 여수시 제2선거구는 민주당 송대수, 여수시 제3선거구는 민주당 서일용, 여수시 제4선거구는 민주당 최종선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광역 의원 선거에서 여수시 제1선거구 민주당 이광일, 제2선거구 민주당 송대수, 제3선거구 민주당 성해석, 제4선거구 민주당 정빈근, 제5선거구 민주당 서현곤, 제6선거구 민주당 최철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 4. 기초의원(시의원) 선거

기초 의원 선거도 총 5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1년에 실시된 기초 의원 선거에서는 여수시 27명, 여천시 9명(보궐선거 2명 포함), 여천군 7명이 기초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95년에 실시된 기초 의원 선거에서는 여수시 28명, 여천시 9명, 여천군 7명이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98년 실시된 기초 의원 선거에서는 26명의 여수시 의원(기초 의원)을 선출되었다. 2002년의 기초 의원 선거에서는 27명이 선출되었다.

2006년의 기초 의원 선거는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으며 정당 공천제와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 선거에서 여수시 의원(기초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 23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합쳐 총 26명의 기초 의원이 선출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기초의원 선거결과 여수시 기초의원은 지역구 의원 23명과 비례대표 3명으로 총 26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었다

#### 여수시·여천군 면 의회 초대의원 명부 (1952. 4. 25~1955. 7. 1)

여수시	돌산면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삼일면	쌍봉면	남 면	화정면	삼신면
김정식	김준정	차종석	정영상	최상영	이순길	정종국	한병운	윤대춘	남경동
문 균	김철수	차진국	이춘근	윤영돈	홍성식	김헌일	박재균	신영호	황남춘
정주양	이의근	백영인	황치정	서재열	심귀수	서원석	김명순	고화영	김종열
강대현	곽봉한	김영준	이용장	장용기	김두만	황일성	박중근	문남귀	김봉군
하동호	주상규	유영선	김동현	이창모	서충식	최사옥	배인영	김부열	박정남
강정수	김현우	주초경	정영순	이두원	김용복	김수곤	명동석	이재명	강권홍
박형규	박성돌	위계인	정태호	박종식	김상권	박봉철	배중기	이귀동	이정재
최대순	강영섭	강상영	이천주	장신태	이천우	정근석	김상숙	김영도	신경옥
정수경	문성인	주영유	김선현	김봉재	대동식	니경운	김용식	김영환	이동은
박두만	김성용	서정남	문정채	박상목	양홍석	김옥진	박상식	강위현	박동민
김금동	노병숙	유재남	서선오	김봉채	이신우	신영우	김형조	강도생	김유우
주정태	정운태	유경동	정양수	최광수	주이춘	장남식	김창대	김용열	이분기
김두옥	김상연		윤상준	이상훈	최윤환	김천열	박현수	강채운	한규홍
임영도	김막들		김용교	박형순		이해권	김형수		
장 기									
남병일									
이기조									
임선봉									
심인구									
박학래									
윤규봉									
서금암									

자료 : 『2006 여수시의회사』

여수시·여천군 면의회 2대의원 명부 (1955. 9. 26~1959. 9. 21)

여수시	돌산면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삼일면	쌍봉면	남 면	화정면	삼산면
김정식	곽봉한	강상영	김주식	김형순	최재림	이영주	윤동균	고하돌	이정재
정만수	유정수	유영선	이기택	김석우	이차돌	김기협	김수일	강건생	이연재
허 권	김기수	박석주	서정생	이기성	서충식	이해원	김명순	김응열	박정남
정석영	배판암	위태환	최재오	정화채	이종구	황치홍	김동민	이순권	최재열
하동호	김청돌	위계인	정수조	손종순	김갑우	서원식	배중기	배부암	김병순
황병규	조지섭	주초경	황치항	김영중	주장석	정승국	박성모	임풍식	김대환
강정수	김권종	서정열	오상중	박상목	이강우	신석우	유현목	김학래	김재민
배말암	이의근	김영준	백화인	이두생	박종기	허순모	김암우	유안국	김종열
김안식	강태인	김용권	김동현	이두원	홍범호	김동주	오효영	신진욱	김재화
박종석	황학모	이이하	김차열	김원식	장태진	박한규	김남일	배석주	이갑신
문형순	김형단	유지형	이태옥	신용기	김형연	김수호	강문열	조창울	추 양
이기조				박병집	안경진	김중철		정봉구	김상권
곽재용				박두석	박인수	김중빈			한규홍
심인구					정기섭				
노준용									
남병일									
박학래									
임선봉									
윤규봉									
이철수									

자료 : 『2006 여수시의회사』

여수시·여천군 면의회 제3대의원 명부 (1958. 8. 31~미상)

여수시	돌산면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삼일면	쌍봉면	남 면	화정면	삼산면
정홍수	유정수	백영인	김주식	유호암	정기섭	정근석	김동민	임홍섭	김복용
문형순	강태인	강인수	정말연	이수귀	조순영	김영욱	김효연	신공연	김상석
김봉수	김기수	주형철	박일주	김호동	김봉안	박서범	김석환	서병구	최해균
정홍수	강소열	차종석	이대규	최윤식	주형순	김공열	배재규	신영호	강동규
강기우	박영식	김영보	정영균	김매암	심상익	김병주	강영희	김경백	김대환
최기태	서정봉	강상영	서정성	김진기	김형곤	정원석	이태석	임인환	김 순
김봉채	김복범	남정철	백화인	이기성	송광열	서정갑	윤태규	윤봉구	김봉균
이기조	김중서	오병희	이기택	장규동	김영진	신학우	이동현	배복암	김병순
김안식	김재숙	유영현	정수조	최준식	홍용백	김종길	강양순	문봉래	장준태



여수시	돌산면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삼일면	쌍봉면	남면	화정면	삼신면
조규환	황학인	문창희	오상중	김찬두	박상선	문현인	배인동	최상병	김동주
황형주	김한태	서종규	김동열	김정용	박인수	황수록	박종철	강문현	최재열
주중석	김성기	손윤백	황치양	신영우	서태식	김동한	김은순	임종윤	이종표
박종석									
김정기									
김봉수									
박종대									
장세종									
김병숙									
김판석									

자료 : 『2006 여수시의회사』

여수시·여천시·여천군 의회의원 명부 (1991. 4. 15 개원)

여수시 (제4대)		여천시 (초대)	여천군 (초대)
임시택	박명갑	최창규	박산수
추상은	백한주	김정민	박평근
송전석	정이근	오병선	최종선
강희성	서완석	정상호	김정곤
서양성	이무성	허영문	강봉재
박양신	박정일	김영훈	정근진
김복곤	정채만	김형만	임길동
강맹선	고호주	정상경	
박중석	조상현	심재현	
김명호	김평호		
전부기	이용화		
박평석	김용재		
김상효	서종대		
이광수	박행순		

자료 : 『2006 여수시의회사』

여수시·여천시·여천군 의회의원 명부 (1995. 7. 10 개원)

여수시 (제5대)		여천시 (2대)	여천군 (2대)
백 용 구	임 용 택	이 동 찬	임 인 환
김 성 식	김 미 자	김 철 수	정 병 관
추 상 은	김 정 완	김 정 민	위 장 환
성 해 석	석 진 수	정 상 경	김 정 곤
정 이 칠	송 대 수	오 병 선	하 정 성
왕 봉 화	박 정 일	박 정 채	임 홍 섭
김 용 옥	정 선 근	이 훈 재	임 길 동
김 영 규	고 효 주	박 한 병	
강 진 원	최 석 규	이 영 조	
정 원 춘	박 기 성		
박 평 석	서 양 기		
박 순 영	최 동 훈		
김 동 화	김 갑 수		
이 성 수	서 완 석		

자료 : 『2006 여수시의회사』

통합 여수시 의회 초대의원 명부 (1998. 4. 1~1998. 6. 30)

박 평 석	김 갑 수	임 길 동	최 석 규
김 동 화	서 완 석	임 인 환	박 기 성
박 순 영	이 동 찬	정 병 관	서 양 기
이 성 수	김 철 수	위 장 환	최 동 훈
임 용 택	김 정 민	김 정 곤	이 영 조
석 진 수	정 상 경	하 정 성	
김 미 자	박 기 수	임 홍 섭	
송 대 수	김 정 완	박 정 채	
박 정 일	고 효 주	이 훈 재	
정 선 근	오 병 선	박 한 병	

자료 : 『2006 여수시의회사』

## 통합 여수시 의회 2대의원 명부 (1998. 7. 1~2002. 6. 30)

김명남	최현범	서완석	이동찬
정병관	심기보	천상국	최철훈
위장환	백용구	최채곤	황치중
김일량	추상은	이삼용	석진수
하정성	정이철	박기성	이성수
정근진	전부기	서종대	윤문호
이만규	박명석	정태호	

## 통합 여수시 의회 3대의원 명부 (2002. 7. 1~2006. 6. 30)

김명남	백용구	박옥심	김상열
정병관	추상은	성해석	박정채
최종선	김영규	강용주	강진원
이길용	박순영	이신호	서현곤
김재철	정태호	심재수	김정민
배상수	이성수	박명근	황치중
지원명	이행우	김덕수	오병선
이기동			

## 통합 여수시 의회 4대의원 명부 (2006. 7. 1~2010. 6. 30)

박정채	강진원	최대식	서완석
이기동	이삼용	김덕수	고효주
유우준	정빈근	차성업	김순빈
박동영	김명남	김영규	정한태
강용주	성해석	최철훈	김상일
박명근	정병관	서현곤	송재향
천순애	박순영	김정민	박옥심
추상은			

## 통합 여수시 의회 5대의원 명부 (2010. 7. 1~2014. 6. 30)

명종남	고효주	김순빈	이기동
정한태	김영규	김종길	전창곤
서완석	강진원	이대길	백인숙
이성수	김성식	박정채	주연창
김유화	정옥기	김상일	임순악
최대식	황치중	김덕수	
최석규	정병관	이선호	

